

# 광주 우치공원, 체험·축제형 테마공원으로

### 내달 500만개 LED 빛축제...오토캠핑장 내년 초 개장

### 5월 동물원 무료개방 앞두고 동물복지사업도 본격 추진

광주우치공원이 시민들의 체험·휴식 공간이자 축제형 테마공원으로 재조성된다. 빛공원을 LED를 이용한 빛축제가 열리고, 가족단위 휴식공간인 오토캠핑장이 들어선다. 조만간 무료로 개방될 동물원에선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패밀리랜드는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공원 부지를 최대한 살려 광주시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호남 최고의 자연친화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레저시설 확보 차원에서 일반 캠핑장과 오토캠핑장을 조성한다. 오토캠핑장은 우치공원 잔디광장 4000㎡(1210평)의 시유지에 시비 5억원을 들

어 조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 캠핑장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오토캠핑장(30면)과 일반 캠핑장에는 취사실·화장실·샤워장·물놀이시설 등 편의시설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다. 오토캠핑장이 조성되면 하루 200명·연간 2만여명이 이용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무이한 놀이공원으로 도심과 매우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광주·전남지역민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다음달 초부터 500만개 전구

가 매일 우치공원 일대 밤을 밝힌다. 로맨틱한 분위기 물씬 풍기는 '로맨틱 일루미네이션' 빛축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빛축제는 빛공원과 포토라인 및 체험시설 등으로 나뉜다. 또 은하수 터널길, 빛거리 등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제격인 빛공원에선 LED 조명을 이용한 음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원이 진행된다. 체험시설에선 LED 미로·해저터널·동화나라 및 프로포즈터널이 설치되며 포토라인에 세계 유명 건축물을 작은 크기로 재현한 미니여자가 조성된다. 원근법을 사용해 사진을 찍으면 실제로 해당 명소에서 촬영한 듯한 느낌을 주도록 설계됐다. 시는 패밀리랜드에 축제기간 동안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우치동물원은 오

는 5월 1일부터 무료 개방된다. 이에 맞춰 시는 우치동물원의 관람 환경 개선과 동물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쇠창살과 콘크리트 바닥으로 지어진 비좁고 낡은 감옥 형태의 우리를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동물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꾼다. 시는 지난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족동물사·열대조류관 및 아프리카관 등을 새단장한 데 이어, 올해는 10억원을 들여 원숭이 우리와 코끼리 방사장 등을 개선하는 등 향후 5년간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동물원 무료개방에 이어 빛축제와 오토캠핑장이 들어서면 관광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며 "우치공원이 호남 최고의 관광지로서 급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꽃샘추위 녹이는 산수유 꽃망울. 꽃샘 추위의 시세에도 어김없이 봄을 알리는 산수유 꽃이 망울을 터뜨렸다. 11일 오후 날씨가 풀린 가운데 광주시 북구 문흥동 근린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노랗게 핀 산수유 꽃을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정부 능력 지원에 광주 '3월 보육료 대란' 불가피

### 예비비 5064억 4월 배분...시교육청 3월분 지급 막막

광주시교육청이 '3월 보육료 대란'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금인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배분하기로 했지만, 시점이 4월이어서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당장 25일로 다가온 3월분 보육료 지급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주례회를 통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예산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정부도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의 집행을 밝혔다. 하지만 돈을 쫓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집행 시점

을 '지방재정법 개정과 동시에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4월이 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돈 가뭄으로 보육대란을 우려했던 다른 시·도 교육청은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1~2월분만 편성했던 광주시교육청은 3월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3월 보육료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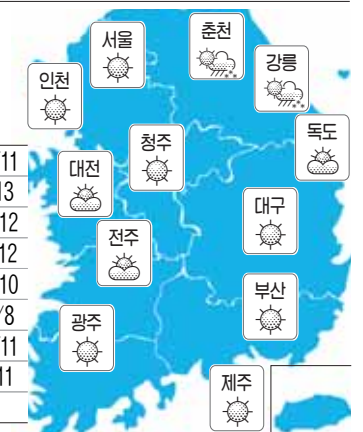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연속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국고 지원을 담보로 3월분 예산 60억원 확보를 위해 유치원 예산 돌려막기 등 고육책을 짜내고 있지만 뽕죽수가 없어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광주시청을 통한 조달도 고민 중이지만 액수가 만만찮은 데다 시의회 동의 절차도 필요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현재 상태로는 3월 보육료 지급이 막막하게 됐다"며 "광주시청에 선지급을 요청하는 등 해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8    달뜨기 00:00  
해질 18:37    달지기 10:26

아침엔 '달달' 낮에는 '포근'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2/13	보성	맑음	-3/11
목포	구름많음	-1/11	순천	맑음	0/13
여수	맑음	1/12	영광	맑음	-4/12
나주	맑음	-5/13	진도	구름많음	-1/12
완도	맑음	0/12	전주	구름많음	-4/10
구례	맑음	-4/13	군산	구름많음	-3/8
강진	구름많음	-2/12	남원	구름많음	-7/11
해남	구름많음	-3/13	홍산도	구름많음	2/11
장성	맑음	-5/12			

#### 바다 날씨

시해	면바다	오전		오후	
		서~북서	남서~서	서~북서	남서~서
남해	면바다	0.5~1.5	남서~서	0.5~1.0	0.5~1.0
남해	면바다	1.0~2.0	남서~서	0.5~1.5	0.5~1.5
남해	면바다(동)	0.5~1.5	남서~서	0.5~1.0	0.5~1.0
남해	면바다(서)	1.0~2.0	남서~서	0.5~1.5	0.5~1.5
남해	면바다(서)	1.0~2.0	남서~서	0.5~1.5	0.5~1.5

#### 생활지수

수면	60
운동	60
빨래	70

#### 주간 날씨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	☀	☀	☀	☀	☁	☀
4/12	0/13	2/15	3/18	5/17	8/15	4/17

## 장성 효문의료재단 등 618억 환수조치 6개월째 제자리 화재·압류 등 '빈껍데기' 재단 결국엔 한 푼도 못받아낼 수도

장성경찰청은 지난해 9월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요양병원(효사랑 병원) 등 관련 5개 병원과 2개 의료법인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618억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면서 병원 운영 기간 중 공단에 청구했던 요양급여비용 일체를 환수하도록 한 조치였다. 6개월이 지났지만 환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관련 내용을 적발, 세금을 환수하겠다고 요란만 떨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효사랑 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했던 요양급여비용 반환을 하지 않아 최근 효문의료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채권처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33조 2항)을 위반해 개설된 만큼 병원 개설시기인 2007년 이후 모든 요양급여비용청구가 무효임에 근거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문제의 병원들 중 장

성 효사랑병원에서 환수해야할 금액은 401억원이다. 하지만 해당 의료재단이 '빈 껍데기'나 다름없어 환수액에는 턱없이 못 미칠 것이라는 게 공단 안팎의 시각이다. 불타버린 병원 건물과 재단 소유 부동산(1만1500㎡), 승용차 3대에 압류를 걸어뒀지만 희망적이지 않다. 압류 대상 건물 및 토지는 경매가 이뤄지면 2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효문의료재단의 경우 청산절차가 진행중으로 채권단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높다. 결국 401억원에 이르는 금액 중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문(54세)씨가 운영하는 다른 의료재단에서 환수해야할 100억원도 비슷한 이유로 때릴 처지다. 이 때문에 '민변'이 화재 참사 희생자 10명의 유가족과 부상자 3명 등 43명을 대리해 의료재단과 이사문씨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10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피해자들의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기용·백희준 기자 pboxer@

200억 한정

##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 골목상권 정책자금대출

## 대출출시!!

연 이율 1.25 ~ 1.4%

대출기간 3년/5년

최 고 2천만원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신분증